

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목 | The Sufi Doctrine of Rumi |
| 발행언어 | 영어 |
| 발행처 | World Wisdom |
| 발행일 | 2005. 6. 16. |
| 저자 | William C. Chittick |
| 출판도시 | Bloomington |
| 페이지수 | 120 |
| ISBN 또는 ISSN | 978-0941532884 |

내용 요약

루미의 시와 작품이 특히 영어로 많이 번역되었는데, 그것은 루미가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 작가인지에 대한 반증이다. 루미는 사실상 미국 일반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찾는 페르시아 수피 시인이다. 하지만 미국 내 일반 독자들의 요구나 눈높이에 부합하는 루미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데, 그것은 루미 사상의 심오함과 수피즘의 신비스러움, 이슬람의 본질 등을 고스란히 담아내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. 게다가 페르시아어로 쓴 루미의 시를 루미의 본래 의도에 맞게 대중적이면서도 수준이 있는 영어로 번역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.

윌리엄 치틱은 이 책에서 일반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루미의 시를 골라 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대중에게 소개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미 시의 아름다움과 마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치틱이 수피즘과 루미 시 연구와 번역의 대가라는 사실을 여실히 말해준다. 루미 연구의 선도 학자로서도 유명한 치틱은 이 책을 통해 루미 사상의 내적 공간과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포문을 연다.

이 책은 서문과 전기적인 언급을 제외하고 총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, 각 장별 내용은 제1장 수피즘과 이슬람, 제2장 신과 세계, 제3장 인간의 본성, 제4장 수피즘의 핵심이다. 중간 중간에 총 천연색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밀화가 들어있는 것과 각 주의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. 그래서 ‘삽화 판본’이라고 부른다. 이 책을 통해 루미를 알고, 그의 종교와 사상을 이해하며, 그의 가르침을 실천함에 있어서 수피즘과 이슬람이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.